

金匱要略·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第七에 대한 연구

김종호 · 한성규 · 여성원 · 이윤천 · 소용섭 · 노승조 · 정현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Atrophy of lung·pulmonary abscess·Lung-distension' in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Jong Ho Kim, Sung Kyu Han, Sung Won Yeo, Yun Cheon Lee, Yong Sub So, Seung Jo Ro, Heon-Young Jeong*

Department of Classics,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e Atrophy of lung(肺痿) among chronic asthenia disease is a kind of tuberculosis. It is divided in two types. One is the Atrophy of lung(虛熱肺痿) with consumptive fever, the other is the Atrophy of lung(虛寒肺痿) with consumptive cold. Four prescriptions(外臺炙甘草湯·千金甘草湯·千金生薑甘草湯·千金桂枝去芍藥加皂莢湯) can be used to treat this disease. Pulmonary abscess(肺癰) is infected by poisonous factors of wind and heat. Its symptoms like coughing, chest pain, fever and phlegm with pus after coughing are appeared generally, in case of serious condition, pyemia after coughing can be appeared. This disease is applicable to lung abscess, bronchiectasis, lung gangrene. Six prescriptions (銀翹散·千金葶藶湯·葶藶大棗瀉肺湯·桔梗湯·外臺桔梗白散·千金葶藶湯) can be used to treat this disease. Coughing and congestion of the head(咳嗽上氣) is called Lung-distension(肺脹). Its symptom is dyspnea caused by more expiration rather than inspiration. This disease is divided into two types like chronic asthenia type and inflammatory type. Seven prescriptions (射干麻黃湯·皂莢丸·厚朴麻黃湯·越婢加半夏湯·小青龍加石膏湯·澤漆湯·麥門冬湯) can be used to treat this disease.

Key words : Atrophy of lung, Pulmonary abscess, Coughing and congestion

緒 論

『金匱要略·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第七』은 肺痿·肺癰·咳嗽上氣의 病因과 發病機轉 및 辨證治療를 論술한 것으로, 이 세 가지의 病證이 모두 肺疾患에 속하고, 또한 증상이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病機에 있어서도 서로 聯關이 있기 때문에 한 편으로 하였다.

肺痿는 肺萎라고도 하며, 肺臟이 말라 시들고 機能이 低下된 것으로¹⁾, 慢性衰弱性 疾患의 하나이다.²⁾ 原文에 밝혔듯이 肺痿는 汗·吐·下를 잘못하여 津液이 줄어들어 발생하며, 咳嗽과 濁唾涎沫이 주된 症狀으로서 津液이 虧損되거나 虛熱이 肺에 灼熱하여 발생하는 虛熱肺痿와 肺中이 虛冷하거나 津液이 圓滑하게 供給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虛寒肺痿로 구분된다.

肺癰은 일찍이 『素問·大奇論』에 “肺에 癰이 발생한 것으로

喘息과 양쪽 옆구리가 脹滿하다.”³⁾고 하였으며, 外感의 風熱邪를 받아 발생하며, 咳嗽·胸痛·發熱·咳嗽할 때 비린내나는 膿痰을 뱉하고, 심할 경우 膿血을 뱉하는 病證이다.

咳嗽上氣와 관련된 內容은 『素問·生氣通天論』, 『素問·藏氣法時論』, 『素問·咳論』, 『靈樞·經脈篇』 등 『內經』에 많이 있는데 肺가 爲主가 되고 心·肝·脾·腎의 病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咳嗽上氣는 단지 症狀이지만 『金匱要略』에서는 症狀 뿐만 아니라 病名으로도 쓰이고 있다. 咳嗽上氣의 原因은 다양하여 外感六淫·內傷飲食·情志·病後의 虛弱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고, 주로 呼吸이 짧고 빠른 것이 특징이다.

본 편에 제시된 內容과 處方은 後代의 『千金要方』·『外臺秘要』·『諸病源候論』·『東醫寶鑑』·『濟衆新編』 등에서 全文이나 拔萃된 要點을 引用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後代의 肺痿·肺癰·咳嗽上氣의 치료는 이를 根幹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

* 교신저자 : 정현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2-850-6808

· 접수 : 2006/01/20 · 수정 : 2006/02/27 · 채택 : 2006/03/23

1) 謝觀: 肺痿는 肺萎니 肺臟枯萎而不振也라

2)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p169.

3) 『素問·大奇論』: 肺之壅이니 喘而兩胛滿이라

로 國外에서는 李⁴⁾의 『金匱要略譯釋』·陳⁵⁾의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張⁶⁾의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등 많은 書籍이 出刊되고, 處方들의 臨床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나, 國內에서는 蔡⁷⁾가 原文의 懸吐와 註釋을 모아둔 것과 日本의 大塚敬節이 講義한 것을 國譯한 것⁸⁾ 외에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에 校勘과 諸家의 註釋을 참고하여 原文과 處方을 理解하므로써 肺痿·肺癰·咳嗽上氣의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研究하였다.

研究方法 및 資料

본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總括 및 結語의 순서로 研究하였다.

1. 原文은 章名을 달았으며, 條文의 번호와 題目을 달았다.
2. 原文은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⁹⁾을 底本으로 하였다.
3.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¹⁰⁾를 準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表1>과 같다.
5. 本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表2>와 같고, 註釋의 내용은 懸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表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編著者	略稱	備考
1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2	外臺秘要	王焜	外臺	
3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4	脈經	王叔和	脈經	
5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澍	魏本	
6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表2. 選注書目

번호	書名	著者	備考
1	金匱要略心典	尤怡	
2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等	
3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4	金匱要略廣注	李炫	
5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6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7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8	金匱要略論注	徐彬	
9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澍	

研究內容

1條. 肺痿의 發生機轉과 肺癰과의 鑑別

【原文】

問曰 熱在上焦者가 因欬(1)爲肺痿(2)하니 肺痿之病은 何從得之(1)오

師曰 或從汗出하며 或從嘔吐하며 或從消渴 小便利數하며 或

從便難에 又被快藥(3)下利(2)하야 重亡津液 故로 得之라

曰 寸口脈數(3)하고 其人欬하며 口中에 反有濁唾(4)涎沫(5)者는 何(4)오

師曰 爲肺痿之病(5)이라 若口中辟辟燥(6)하고 欬卽胸中隱隱痛하고 脈反滑數하면 此爲肺癰이라 咳唾膿血에 脈數虛者는 爲肺痿(6)오 數實者는 爲肺癰이라

【校勘】

1) 何從得之: 『醫統本』·『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從何得之”로 되어 있다.

2) 又被快藥下利: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數被快藥下利”로 되어 있다.

3) 曰寸口脈數: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問曰寸口脈數”으로 되어 있다.

4) 何: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何也”로 되어 있다.

5) 爲肺痿之病: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此爲肺痿之病也”로 되어 있다.

6) 肺痿: 『魏本』에는 “脈痿”로 되어 있다.

【注釋】

1) 欬: 欬는 ‘가래 없이 기침 소리만 나는 것’¹¹⁾을 뜻하지만, 本 卷 전체에서는 咳嗽를 통칭한다.

2) 肺痿: 皮痿, 皮毛痿라고도 함. 肺熱로 津液이 소모되어 생기는데 皮毛가 거칠고 위축되며 기침을 하고 숨이 찬다.¹²⁾

3) 快藥: 峻烈하게 攻下하는 藥을 가리킨다.¹³⁾

4) 濁唾(탁타): 稠痰. 몹시 끈적끈적하고 걸쭉해진 痰을 말한다.

5) 涎沫(연말): 稀痰. 거품이 섞인 침을 말한다.

6) 辟辟燥(벽벽조): 辟辟은 乾燥의 뜻으로 ‘辟辟燥’는 입안이 甚하게 마르는 것을 뜻한다.¹⁴⁾

【國譯】

問기를 “熱이 上焦에 있는 사람은 기침으로 인하여 肺痿가 되니 肺痿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스승께서 대답하시기를 “땀을 많이 흘리거나, 嘔吐를 하거나, 消渴로 小便을 자주 보거나, 大便을 보지 못하는데 멍렬하게 攻下하는 藥으로 下利를 심하게 하여 津液이 거둬 없어져서 肺痿가 발생된다.”

問기를 “寸口脈이 數하고 症狀이 기침을 하고 입안에 도리어 濁唾와 涎沫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시기를 “肺痿의 病이다. 만약 입안이 매우 마르고 마른기침을 할 때 가슴이 은은하게 아프며 寸口脈이 도리어 滑數하면 이는 肺癰이다. 기침하고 침을 뱉을 때 膿血이 나오는 경우에 寸口脈이 數虛하면 肺痿, 數實하면 肺癰이 된다.”

【考察】

肺痿의 發病機轉은 原文에 “亡津液 故得之”라 하였듯이 過

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5)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6)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7)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8) 大塚敬節 主講 焉哉乎也 編譯: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3.
9) 張仲景 原著, 王叔和 撰次, 林億 校正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 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서울, 1960.
10)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11) 謝觀: 有聲無痰曰咳, 新編中國醫學大辭典, 여강출판사, 서울, 2001, p2105
1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韓醫學大辭典, 정담, 서울, 2001, p1660
13) 指峻猛攻下藥
中醫藥學高級叢書: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2000, 北京, p222
14) 辟辟燥: 辟辟은 形容乾燥이나 辟辟燥는 指口中乾燥甚甚이라 中醫藥學高級叢書: 陳紀藩, 人民衛生出版社, 2000, 北京, p222

多한 汗出, 嘔吐, 消渴, 小便利數, 大便難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강한 瀉下藥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津液이 없어진 것이 原因이다. 津液이 없어짐으로써 腎水가 마르고 이로 인하여 虛熱이 발생하여 肺金을 損傷시킴으로써 肺痿가 발생된다. “熱在上焦”는 肺痿가 陰虛한 體質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寸口는 上部를 살피니 寸口脈數은 熱이 上焦에 있는 것이고, 熱이 上衝하면 氣가 逆上하여 肺로 衝突하여 喘咳가 발생되고, 虛熱이 上衝하여 肺를 熏蒸하면 口가 마르고 唾液이 끈적끈적하며 肺氣가 清肅하지 못하면 涎沫이 濁하면서 냄새가 난다. 여기서 ‘反’이라 한 것은 喘咳에 涎沫이 나오지 않아야 하나 도리어 ‘濁唾涎沫’이 나오 때문이다.¹⁵⁾

“咳唾膿血”에 대하여 尤怡는 肺癰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으나 陸淵雷는 肺痿와 肺癰 모두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다. 肺痿와 肺癰은 現代醫學의 病名으로는 肺痿는 肺結核의 종류에, 肺癰은 肺膿瘍·氣管支擴張症·肺壞疽¹⁶⁾ 등에 해당되는데 肺痿에 해당되는 肺膿瘍·氣管支擴張症·肺壞疽의 경우에 化膿性喀痰을 동반하며¹⁷⁾, 肺結核의 경우에도 初期에는 마른기침을 하다가 객담을 동반하며 咯血을 동반하는 양상으로 바뀐다.¹⁸⁾ 다만 肺膿瘍·氣管支擴張症·肺壞疽의 경우에는 다량의 ‘Foul odor(하수구냄새)’를 수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咳唾膿血”은 肺痿와 肺癰 모두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肺痿의 治方이 본 條文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附方에 있는 外臺炙甘草湯, 千金甘草湯, 千金生薑甘草湯, 千金桂枝去芍藥加皂莢湯을 사용한다. 다만 外臺炙甘草湯은 唾唾多·心中溫溫液液한 경우에, 千金生薑甘草湯은 咳唾涎沫不止 咽燥而渴한 경우에, 千金桂枝去芍藥加皂莢湯은 吐涎沫한 경우에 사용한다. 千金甘草湯의 適應症에 대하여 原文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外臺·卷十 肺痿方十一首』에는 “千金療肺痿涎唾多出 心中溫溫液液 甘草湯方”이라 하였으니 外臺炙甘草湯과 유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2條. 肺癰의 病因·病理와 豫候

【原文】

問曰 病欬逆(1)을 脈之하야 何以知此爲肺癰이며 當有膿血하야 吐之則死라하니 其脈은 何類(1)오

師曰 寸口脈이 微而數하면 微則爲風이오 數則爲熱이니 微則 汗出하고 數則惡寒이라 風中於衛하면 呼氣不入(2)하고 熱過於榮(3)하면 吸而不出(4)하니 風傷皮毛하고 熱傷血脈이라 風舍於肺(5)하면 其人則欬호대 口乾喘滿(2)하고 咽燥不渴하고 時唾濁沫하고 胸膈脹寒(6)이라 熱之所過에 血爲之凝滯하니 結成癰膿하고 吐如米粥이라 始萌(3)可掬(4)로대 膿成則死라

【校勘】

1) 吐之則死 其脈何類: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

15) 魏荔洞: 寸口는 上以候上也오 數은 熱在上焦也라 其人咳는 熱上則氣上하고 氣上衝肺하야 逆而咳作也라 口中反有濁唾涎沫은 熱上而煎肺則口乾唾粘하고 肺氣不清則涎濁하며 且氣必臭라 言反者는 咳却無痰涎出而唾反濁粘이라

16) 中西病名對照表: 葉橘泉 編著, 千頃堂書局, 上海, 1955, p4.

17) 김형섭: 내과학 호흡기II, 고려의학, 서울, 2003, p122, 161.

18) 上揭書 p131

證第十五』에는 “吐之則死 後竟吐膿死 其脈何類”로 되어 있다.

2) 呼氣不入: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呼吸不入”으로 되어 있다.

3) 熱過於榮: 『醫統本』에는 “熱遍於榮”으로 되어 있다.

4) 吸而不出: 『醫統本』에는 “吸氣不出”로 되어 있다.

5) 風舍於肺: 『醫統本』·『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魏本』·『尤本』에는 “風舍於肺”로 되어 있다.

6) 時唾濁沫 胸膈脹寒: 『醫統本』·『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魏本』·『尤本』에는 “多唾濁沫 時時振寒”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欬逆: 기침을 하면서 숨이 찬 것.¹⁹⁾

2) 喘滿(천만): 숨이 차면서 가슴속이 그득하고 답답한 것을 말한다.

3) 萌: 木始生, 싹틀 맹.

4) 掬: 救古字, 호위할 구.

【國譯】

문기를 “欬逆을 診脈하여 肺癰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며, 肺癰에 膿血을 吐하면 죽는다고 하니 그 때의 脈은 어떠한가?” 스승이 대답하시기를 “寸口脈이 微하면서 數하면 微脈은 風邪이고 數脈은 熱邪로 인한 것이니 微脈이 있어서 汗出하고 數脈이 있어서 惡寒하게 된다. 風邪가 衛氣를 侵犯하면 呼氣가 들어오지 못하고, 熱邪가 營氣를 侵犯하면 吸氣가 나가지 못하니 風邪가 皮毛를 損傷하고 熱邪가 血脈을 손상시킨 것이다. 風邪가 肺에 侵犯하면 咳嗽을 하되 口乾喘滿하고 咽喉가 마르나 물을 마시지 않고 때로는 濁沫을 뱉고 胸膈部가 脹滿하고 振寒하며, 熱邪가 榮血에 侵犯함에 血이 凝滯하여 쌓여서 癰膿이 되고 米粥같은 痰을 吐하니 膿이 이루어지기 以前이면 치료할 수 있으나 膿이 생긴 뒤에는 치료하지 못하여 죽는다.”

【考察】

原文에 “微則爲風 數則爲熱”이라 하였듯이 肺癰은 風熱로 인하여 발생된다. 汗出하는 것은 風邪가 침범하면 表虛하므로 自汗하는 것이고, 熱邪가 侵犯하면 外寒하므로 惡寒하며²⁰⁾; 肺熱이 壅滯되므로 口乾喘滿하고, 熱邪가 血中에 있으므로 咽燥不渴하며; 熱邪가 肺를 逼迫하여 도리어 熱로 化하므로 唾濁沫하고, 熱이 裏部에 盛하여 外部에는 氣가 없으므로 振寒하며; 蓄積된 熱이 제거되지 않고 血이 凝結되어 疏通되지 않아서 膿血이 된다²¹⁾.

“吐之則死”에 대하여 肺癰에 吐法을 用한다는²²⁾ 뜻으로 하였으나 鬻는 肺癰의 症狀에 ‘吐膿血’이 가장 危重하다²³⁾는 뜻으로 보았는데 前後의 文脈으로 보아 이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微而數”에서 ‘微’에 대하여 吳謙 등은 ‘浮’로 고쳐야 한다²⁴⁾

19) 巢元方: 咳嗽而氣上逆也

20) 徐彬: 微主風하고 風則表虛自汗 故로 微則汗出이오 內熱則外寒 故로 日數則惡寒이라

21) 尤怡: 肺熱而壅 故로 口乾而喘滿하고 熱在血中 故로 咽燥而不渴이라 且肺被熱迫 而反以熱化하야 爲多唾濁沫하고 熱盛於裏 而外反無氣하야 爲時時振寒이라 由是熱蓄不解하고 血凝不通而癰膿成矣라

22) 金匱要略精義: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1984, p110.

23) 曹穎甫: 肺癰之死證은 固以吐膿血爲最後一步라

24) 吳謙 等: 脈微之三微字는 當是三浮字라 微字文氣不屬하니 必是傳寫之誤라

고 하였고, 喻昌은 肺癰의 일반적인 滑數에 상대한 것으로 微數은 初起의 脈으로 보았다.²⁵⁾ 『『脈經』·平癰腫腸癰金瘡浸淫脈證』의 “脈微而遲 必發熱 弱而數 爲振寒 當發癰腫”²⁶⁾에 의거해 보면 微脈에서도 癰腫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喜多村直寬은 ‘浮’로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²⁷⁾. 이 부분에 대한 註釋을 보면 ‘正氣虛弱’한 微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黃은 陽氣虛한 微脈이 아니라 ‘微’라는 것은 ‘顯’과 對比되는 것으로 肺癰의 典型的 脈象인 滑數脈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것²⁸⁾으로 설명하였는데 參考할 만 하다.

肺癰의 預後에 있어 “始萌可掬 膿成則死”라 하였는데 앞의 “熱之所過 血爲之凝滯 蓄結癰膿 吐如米粥”을 보면 咯痰의 양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米粥’의 양상은 대략 현대 의학적으로 葡萄狀球菌에 의한 肺炎에서 나타나는 ‘creamy yellow’와 클립시엘라(Klebsiella) 肺炎에서 肺組織 壞死로 인하여 객담이 끈적끈적한 양상의 ‘current jelly’와 유사한 것으로 推定된다.

肺癰의 原因은 風熱이라 하였는데 이로써 미루어보면 風은 肺膿瘍·氣管支擴張症·肺壞疽를 일으키는 葡萄狀球菌과 같은 菌과, 熱은 陰虛한 體質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3條. 虛證上氣

【原文】

上氣(1) 面浮腫하고 肩息(2)하며 其脈浮大면 不治오 又加利하면 尤甚이라

【注釋】

- 1) 上氣(상기): 내쉬는 숨은 많고 들이쉬는 숨은 적으며 呼吸이 빠른 것.²⁹⁾
- 2) 肩息(견식): 심한 천식 때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힘들게 숨을 쉬는 상태를 말한다.

【國譯】

上氣에 얼굴이 붓고 肩息하며 寸口脈이 浮大하면 치료할 수 없고, 게다가 下利를 하면 더욱 甚해진다.

【考察】

이는 肺와 腎이 虛하여 治療할 수 없는 上氣를 논술한 것이다.³⁰⁾ 腎이 納氣하지 못하면 氣가 上衝하고 肺氣가 壅塞하여도 氣가 上衝되며, 面浮腫은 萎黃하고 潤澤하지 못하며, 肩息한 것은 氣短하여 퍼지지 않는 것이고 浮大脈이 나타나면 陽氣가 위로 脫盡하려는 것이므로 治療할 수 없다.³¹⁾ 여기서의 浮大脈은 눌렀을 때 힘이 없고 根氣가 없는 것이다.³²⁾

본 條文의 下利가 있으면 더욱 심하게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腸結核에 해당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浮腫의 本否는 原因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低蛋白血症(hypoproteinemia)으로 초래되는 浮腫은 특징적으로 全身的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眼瞼이나 顔面과 같이 매우 부드러운 조직에 뚜렷하며, 夜間의 누운 자세 때문에 아침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³³⁾ 低蛋白血症은 血液中 蛋白質의 非正常的 減少를 의미하며 본 條文에서 서술하고 있는 肺腎兩虛로 나타나는 上氣에 面浮腫, 肩息, 脈浮大의 증상과 類似하여 어느 정도 符合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4條. 實證上氣

【原文】

上氣 喘而躁(1)者¹⁾는 屬肺脹(2)²⁾하야 欲作風水(3)³⁾니 發汗則愈라

【校勘】

- 1) 喘而躁者: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嗽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燥而喘者”로 되어 있다.
- 2) 屬肺脹: 『尤本』에는 “此爲肺脹”으로 되어 있다.

【注釋】

- 1) 躁(조): 煩燥하면서 편안하지 않은 것.³⁴⁾
- 2) 肺脹(폐창): 邪氣가 肺에 침범하여 肺氣가 滯만해서 생긴다.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이 차고 缺盆 속이 아프다.
- 3) 風水(풍수): 浮腫의 하나. 風邪에 의해서 肺의 肅降機能이 막혀 水道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다. 얼굴이나 눈꺼풀부터 붓기 시작하여 점차 팔다리와 온몸에 퍼지는데 붓는 속도가 빠르다. 처음에는 오싹오싹 춥고 열이 나면서 뼈마디가 쭈시고 아프며 오줌량이 적어지면서 잘 나가지 않는다.

【國譯】

上氣에 천식을 하면서 煩躁가 나타나는 것은 肺脹에 속하여 風水가 발생되려는 것이니 發汗시키면 낫는다.

【考察】

上氣에 氣喘을 하고 煩躁하는 것은 外感風邪로 內部에 水氣가 쌓인 것이다. 外部의 風邪가 表部에 침범하여 氣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喘息을 하게 되고, 內部의 水氣가 위로 上衝하여 내려가지 않으므로 煩躁가 나타난다.³⁵⁾ 따라서 發汗을 하여 外感風邪를 除去하면 水氣가 運行되므로 “發汗則愈”라 하였다.

앞의 3條와 比較할 때 같은 上氣이지만 3條는 正氣虛脫로 인한 虛證이고, 4條는 外感風邪로 水氣의 運行이 막힌 것이다. 따라서 治法에 있어서도 4條는 ‘發汗’하지만 3條의 경우에는 補法을 사용하여야 한다.

5條. 甘草乾薑湯證

【原文】

肺痿에 吐涎沫而不咳者는 其人이 不渴하고 必遺尿(1)小便數

- 33) 해리슨내과학: 대한내과학회, 도서출판MIP, 서울, 2003. p225.
- 34) 景岳: 躁는 煩燥不寧也라
- 35) 魏荔澗: 上氣 氣喘而心躁者는 此外感風邪로 內積水氣也라 外風鬱於表而氣不舒 故로 喘하고 內水沖於心而氣不下 故로 躁라

25) 喻昌: 肺癰之脈을 既云滑數이어늘 此復言微數者는 非脈之有不同也라 滑數者는 已成之脈이오 微數者는 初起之因也라

26) 『脈經』校釋: 福州市人民醫院,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581.

27) 金匱玉函要略疏義: 喜多村直寬,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3. p90.

28) 黃樹曾: 微者는 顯之對니 脈形不顯曰微라 此微脈은 非陽氣虛오 內風伏於內 故로 曰微則爲風이라

29) 上氣者 呼多吸少 氣息促急也

30) 曹穎甫: 此는 上氣以肺腎兩虛而不治者也라

31) 曹穎甫: 腎不納氣則氣上衝하고 肺氣壅塞則氣亦上衝하며 但面浮腫則痿黃而不澤하고 肩息則氣短而不伸하며 可以浮大之脈 則陽氣將從上脫 故로 曰不治라

32) 陳紀藩: 陽虛氣衰하야 欲脫於上하니 所以脈浮大必無力 而且按之無根이라

하나니 所以然者는 以上虛하야 不能制下故也1)라 此爲肺中冷2)이니 必眩多涎唾3)하면 甘草乾薑湯으로 以溫之라 若服湯已渴者는 屬消渴4)이라

甘草乾薑湯方：甘草四兩 炙(2) 乾薑二兩 炮(3)

右咬咀(4)하야 以水三升으로 煮(5)取一升五合하야 去滓하고 分溫再服이라

【校勘】

- 1) 以上虛不能制下故也：『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以上虛不能制下也”로 되어 있다.
- 2) 此爲肺中冷：『外臺·卷10 肺痿方一十首』에는 “此爲肺冷”으로 되어 있다.
- 3) 必眩多涎唾：『外臺·卷10 肺痿方一十首』에는 “必眩”으로 되어 있다.
- 4) 以溫之 若服湯已渴者屬消渴：『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外臺·卷10 肺痿方一十首』에는 “以溫其臟”으로 되어 있다.

【注釋】

- 1) 遺尿(유뇨)：小便을 참지 못하여 저절로 나오는 증.
- 2) 炙：合炒. 약재를 액체 보조 재료에 재웠다가 볶거나 굽는 것을 말한다.
- 3) 炮：약재를 물에 불려 잣불에 묻어 굽는 것을 말한다.
- 4) 咬咀(부저)：입으로 깨물어서 깨는 의미.
- 5) 煮：烹也, 다릴 자

【國譯】

肺痿에 涎沫은 마하나 기침을 하지 않는 사람은 渴症이 나지 않고 반드시 遺尿나 小便頻數이 발생하니 그러한 까닭은 上虛하여 下部를 制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肺中이 寒冷하여 된 것으로 반드시 어지럽고 涎唾가 많으니 甘草乾薑湯으로 溫補한다. 만약 甘草乾薑湯을 服用한 뒤에 口渴이 있는 사람은 消渴에 屬한다.

甘草乾薑湯方：甘草 四兩 炙 乾薑 二兩 炮

위의 약재를 잘게 썰어서 물 三升으로 一升五合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앞의 1條는 虛熱로 발생되는 肺痿이나, 5條는 原文에 “以上虛不能制下故也”라 하였듯이 虛寒으로 발생되는 肺痿를 설명하였다.

喘咳하면서 涎沫이 없는 것은 肺燥欬이고, 喘咳하면서 涎沫이 있는 것은 肺熱痿이다. 마치 肺痿처럼 涎沫이 있으나 喘咳가 없는 것은 肺中에 冷飲이 있기 때문이지 肺中에 熱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다. 肺中에 冷飲이 있으면 口渴이 없고 遺尿, 小便數, 頭眩, 多涎唾한다. 이러한 까닭은 上焦에 陽虛하여 下焦의 陰水를 制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6) 따라서 甘草乾薑湯으로 肺의 寒飲을 溫散시키는 것으로 治法을 삼았다. 처음에 口渴의 症狀이 없었으나 甘草乾薑湯을 服用하고서 口渴이 있는 것은 肺의 虛熱이나 寒飲이 있는 것이 아니고 胃中熱로 인한 것이므로 消渴이라 하였다. 따라서 治法에 있어서도 胃中熱로 인하여 발생되는

消渴을 치료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6條. 射干麻黃湯證

【原文】

欬而上氣하고 喉中水鷄聲(1)하면 射干麻黃湯主之라

射干麻黃湯方：射干十三枚 云三兩1) 麻黃四兩 生薑四兩 細辛三兩 紫苑三兩 款冬花三兩2) 五味子半升 大棗七枚 半夏大者八枚 洗3)(2) 一法半升

右九味를 以水一斗二升으로 先煮麻黃兩沸(3)하야 去上沫(4)하고 內(5)諸藥하야 煮取三升하야 分溫三服이라

【校勘】

- 1) 射干 十三枚 云三兩：『醫統本』·『魏本』에는 “射干十三枚 一法三兩”으로, 『尤本』에는 “射干三兩”으로 되어 있다.
- 2) 細辛三兩 紫苑三兩 款冬花三兩：『醫統本』에는 “細辛 紫苑 款冬花各三兩”으로 되어 있다.
- 3) 半夏大者八枚洗：『魏本』에는 “半夏大者洗 八枚”로 되어 있다.

【注釋】

- 1) 喉中水鷄聲(후중수계성)：哮喘病으로 痰이 끓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水鷄가 우는 소리와 같은 것을 形容한 말이다.
- 2) 洗：물로 藥物의 表面에 붙어 있는 흙이나 그 외의 不純物을 씻어 내는 것으로, 약물의 특성에 따라 유효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씻어서 햇볕이나 60℃ 안팎의 건조실에서 빨리 말린다.(* 洗：滌也, 씻을 세)
- 3) 沸：沸騰, 끓을 비
- 4) 沫：湯華, 물끓는 버금 말
- 5) 內：入也, 들일 납

【國譯】

기침을 하면서 숨이 가쁘고 喉中에 痰이 끓는 소리가 나면 射干麻黃湯으로 치료한다.

射干麻黃湯方：射干 十三枚 (三兩이라고 한 것도 있다.), 麻黃 四兩, 生薑 四兩, 細辛 三兩, 紫苑 三兩, 款冬花 三兩, 五味子 半升, 大棗 七枚, 半夏 큰 것 八枚 洗한다.(半升이라 한 것도 있다.)

위의 아홉 가지 藥材를 물 一斗二升으로 먼저 麻黃을 달이는데 두 소금 끓여서 위에 떠있는 거품을 없애고 나머지 藥材를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考察】

咳嗽에 上氣하는 것은 肺에 邪氣가 있는 것37)인데 射干麻黃湯이 麻黃·生薑·細辛·半夏 등 性質이 溫한 藥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條文은 寒飲으로 발생된 咳嗽上氣를 논술한 것이다. ‘喉中水鷄聲’은 痰氣가 막혀서 나는 소리이니38) 肺中의 寒飲이 위로 喉間으로 들어가면 呼吸의 氣가 激動하면 소리가 水鷄聲과 같이 된다.39)

麻黃射干湯 가운데 射干·紫苑·款冬花는 上逆된 氣를 下降시키고, 麻黃·細辛·生薑은 邪氣를 發散하고, 半夏는 去痰하고, 大棗로써 安中하며 五味子로써 肺氣를 收斂하는 것은 發散하는 藥

36) 吳謙 等：欬而不吐涎沫者는 肺燥欬也오 欬而吐涎沫者는 肺熱痿也라 若似肺痿之吐涎沫而不效者는 此爲肺中有冷飲이오 非爲肺中成熱痿也라 肺中冷하면 則其人이 必不渴遺尿小便數頭眩多涎唾하니 所以然者는 以上焦陽虛하야 不能約制下焦陰水라

37) 徐彬：咳而上氣는 肺有邪니 皆有邪也라
38) 李炆：喉中水鷄聲은 痰氣壅塞而作聲也라
39) 尤怡：肺中寒飲이 上入喉間하야 爲呼吸之氣所激하면 則作聲如水鷄聲이라

材들로 구성되어 正氣가 손상될 것을 防止하기 위함이다.⁴⁰⁾

7條. 皂莢丸證

【原文】

咳逆上氣하여 時時吐濁¹⁾하고 但坐不得眠하면 皂莢丸主之라
皂莢丸方 : 皂莢八兩 刮¹⁾去皮²⁾ 用酥炙³⁾

右一味를 末之²⁾하여 蜜丸⁴⁾ 梧子大⁵⁾하고 以棗膏⁶⁾和⁷⁾
湯으로 服三丸호대 日三夜一服이라

【校勘】

- 1) 時時吐濁: 「醫統本」에는 “時時唾濁”으로 되어 있다.
- 2) 末之: 「醫統本」에는 “研末”로 되어 있다.

【注釋】

- (1) 刮: 削也, 깎을 팔
- (2) 去皮(거피): 약재의 겉껍질·씨껍질·열매속껍질 등을 벗겨 버리는 것을 말한다.
- (3) 酥炙(수자): 炙를 할 때 타락죽을 액체 보조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酥: 酪也, 타락죽 수)
- (4) 蜜丸(밀환): 煉蜜丸·꿀알약이라고도 함. 한약가루를 정제한 꿀에 반죽하여 둥글게 만든 丸藥이다.
- (5) 梧子大(오자대): 환제 1환의 크기. 오동나무 씨 크기 만한 것. 약가루를 사방 1치 되는 약순가락으로 한 순가락 떠서 꿀로 반죽하여 梧子大 10구를 만들 수 있다. 梧子大 1구는 0.3~0.4g 또는 0.15~0.3g 정도이다.
- (6) 膏: 한약 劑型의 하나로 膏劑라고도 한다. 한약가루나 엑스에 벌꿀이나 사탕을 섞어서 만든 된 옛 정도의 약엿이다.
- (7) 和: 調味, 섞을 화

【國譯】

기침을 하면서 숨이 가쁘고 때로는 濁痰을 뱉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아만 있으면 皂莢丸으로 치료한다.

皂莢丸方

皂莢 八兩 껍질을 긁어서 없애고 酥炙를 해서 사용한다. 皂莢을 가루를 내어 梧子大 크기로 蜜丸하였다가 대추로 膏를 낸 것을 끓는 물에 타서 三丸씩 닳에는 세 번, 밤에는 한 번 服用한다.

【考察】

皂莢은 모든 痰氣와 관련된 胸中痰結, 咳逆上氣, 痰喘咳嗽 등을 치료한다⁴¹⁾. 따라서 皂莢丸을 사용하는 目的은 痰을 宣導하여 氣를 通達하기⁴²⁾ 위함이므로 본 條文에 제시되어 있는 症狀은 濁痰이 肺를 막아서 발생하는 咳逆上氣이다. 皂莢丸을 藥膏에 服用하는 것은 皂莢의 除痰하는 힘이 매우 맹렬하기 때문에 正氣를 분달아 주기 위함이다.⁴³⁾

8條. 厚朴麻黃湯證

【原文】

欬而脈浮者是 厚朴麻黃湯主之라

40) 尤怡: 射干紫菀款冬은 降逆氣하고 麻黃細辛生薑은 發邪氣하고 半夏는 消飲氣하며 而以大棗로 安中하고 五味로 斂肺는 恐劫散之藥이 并傷及其正氣也라

41) 本草綱目: 李時珍 著, 陳貴廷 等 校,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p860.

42) 吳謙 等: 皂莢丸-者는 宣導其痰하고 通達其氣也라

43) 尤怡: 皂莢은 味辛入肺하여 除痰之力最猛하니 飲以棗膏는 安其正也라

厚朴麻黃湯方

厚朴五兩 麻黃四兩 石膏如鷄子大¹⁾ 杏仁半升 半夏一升¹⁾ 乾薑一兩²⁾ 細辛二兩 小麥一升 五味子半升

右九味를 以水一斗二升으로 先煮小麥熟하고 去滓하여 內諸藥하고 煮取三升하여 溫服一升호대 日三服이라

【校勘】

- 1) 半夏一升: 「醫統本」·「魏本」에는 “半夏半升”으로 되어 있다.
- 2) 乾薑一兩: 「醫統本」·「魏本」·「尤本」에는 “乾薑二兩”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鷄子大(계자대): 계란크기로, 15~20g 정도의 무게이다.

【國譯】

기침을 하면서 脈浮한 사람은 厚朴麻黃湯으로 主治한다.

厚朴麻黃湯方 : 厚朴五兩 麻黃四兩 石膏如鷄子大 杏仁半升 半夏一升 乾薑一兩 細辛二兩 小麥一升 五味子半升

以上的 아홉 가지 藥材를 물 一斗二升으로 먼저 小麥이 익을 정도로 끓이고 찌꺼기를 없앤 뒤에 나머지 藥材를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魏荔洞 등은 “咳嗽을 하면서 浮脈이 나타나는 것은 表邪가 막아서 內部의 氣가 上逆하는 것이다.”⁴⁴⁾고 하여 外感表證으로 理解하였으나, 李彤 등은 “咳嗽은 水寒의 邪氣가 肺를 侵犯한 것이고, 浮脈은 水濕이 停滯된데다가 風邪를 兼한 것이다.”⁴⁵⁾고 하였고, 丹波元堅은 “水飲이 上迫하면 脈이 반드시 浮脈을 띠니 表證이 있는지 없는지에 拘碍될 필요가 없다.”⁴⁶⁾고 하여 外感表證에 水飲이 停滯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厚朴은 中風傷寒의 頭痛寒熱驚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健脾와 消痰下氣의 效能을 갖고 있다.⁴⁷⁾ 본 條文의 厚朴麻黃湯의 君藥은 厚朴으로 上逆된 氣를 下降시키고 中焦를 溫中하기 위한 것으로⁴⁸⁾ 水濕이 停滯되어 上逆된 것을 下降시키기 위한 目的으로 사용된 것으로 思料되므로 ‘浮脈’은 外感表證에 水濕이 停滯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또한 麻黃과 杏仁은 宣肺降逆平喘하고, 細辛·乾薑·半夏는 溫化寒飲하고, 石膏는 清解鬱熱하고, 五味子は 麻黃·細辛·乾薑으로 肺氣를 過度하게 耗損시킨 것을 收斂하고, 小麥은 養正安中한다.⁴⁹⁾

9條. 澤漆湯證

【原文】

脈沈者是 澤漆湯主之라

澤漆湯方 : 半夏半升 紫參五兩 一作紫苑 澤漆三斤¹⁾ 以東流水五斗로 煮取一斗五升이라 生薑五兩 白前五兩 甘草三兩 黃芩三

44) 魏荔洞: 咳而脈浮는 亦表邪壅閉而內氣上逆也라

45) 李彤: 咳者는 水寒射肺也오 脈浮者는 停水而又挾風以鼓之也라

46) 丹波元堅: 按건대 水飲上迫하면 脈必帶浮하니 不必拘表證有無라

47) 本草綱目: 中風傷寒 頭痛寒熱驚悸 … 消痰下氣 … 健脾
本草綱目: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p. 846.

48) 魏荔洞: 厚朴則但取降逆氣溫中焦而已라

49) 陳紀藩: 輔以麻黃杏仁宣肺降逆平喘하고 又佐以細辛乾薑半夏溫化寒飲하고 石膏清解鬱熱하며 更有五味子酸斂肺氣하여 以防麻黃細辛乾薑過于耗散肺氣하고 小麥養正安中護胃라

兩 人參三兩 桂枝三兩

右九味를 咬咀하고 內澤漆汁中하여 煮取五升하여 溫服五合 卽夜 至夜盡이라

【校勘】

1) 澤漆三斤: 『尤本』에는 “澤漆三升”으로 되어 있다.

【國譯】

기침을 하면서 脈이 沈하면 澤漆湯으로 치료한다.

澤漆湯方: 半夏 半升, 紫參 五兩(어느 곳에는 紫苑으로 되어 있다.) 澤漆 三斤 東쪽으로 흐르는 물 五斗에 一斗五升이 되도록 달인다. 生薑 五兩, 白前 五兩, 甘草 三兩, 黃芩 三兩, 人參 三兩, 桂枝 三兩

以上の 아홉 가지 藥材를 썰어서 澤漆汁에 넣고 五升이 되도록 달여서 五合을 따뜻하게 복용하되 밤이 될 때까지 모두 복용한다.

【考察】

本 條文은 앞의 ‘脈浮’에 대하여 ‘脈沈’의 경우를 논술한 것으로, 沈脈은 表邪가 熱로 變하여 裏部로 들어간 것이다⁵⁰⁾. 澤漆을 君藥으로 삼은 것은 澤漆이 消痰行水하기 때문이며, 水濕이 停滯되는 것은 脾土가 衰弱하여 水濕을 制御하지 못하므로써 肺氣가 上逆하여 通調水道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人參·紫參·白前·甘草를 사용하여 補脾順肺하여 水濕을 統制하는 것이고, 黃芩은 熱을 빼기 위함이고, 半夏·乾薑·細辛은 發散하기 위함이다.⁵¹⁾

10條. 麥門冬湯證

【原文】

大逆하여 上氣¹⁾하고 咽喉不利에 止逆下氣者는 麥門冬湯主之라

麥門冬湯: 麥門冬七升 半夏一升 人參三兩²⁾ 甘草二兩 粳米三合 大棗十二枚

右六味를 以水一斗二升으로 煮取六升하여 溫服一升卽夜 日三夜一服이라

【校勘】

1) 大逆上氣: 『尤本』, 『吳本』·『魏本』에는 “火逆上氣”로 되어 있다.

2) 人參三兩: 『醫統本』·『魏本』·『尤本』에는 “人參二兩”으로 되어 있다.

【國譯】

氣가 逆上하여 숨이 가쁘고 咽喉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를 下氣시키는데는 麥門冬湯으로 치료한다.

麥門冬湯: 麥門冬 七升, 半夏 一升, 人參 三兩, 甘草 二兩, 粳米 三合, 大棗 十二枚

以上 여섯 가지 藥材를 물 一斗二升으로 六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溫服하되 낮에는 세 번, 밤에는 한 번 복용한다.

50) 魏荔澗: 咳而脈沈不浮하면 則表邪變熱入裏矣라
51) 李彭: 脈沈爲水에 以澤漆爲君者는 因其功專于消痰行水也라 ... 然所以停水者는 以脾土衰不能制水하여 肺氣逆不能通調水道 故是 用人參紫參白前甘草하여 補脾順肺하리 同爲制水利水之坊이라 黃芩은 苦以泄之오 半夏生薑細辛은 以散之也라

【考察】

여기에서 “咽喉不利”는 咽喉에 마치 어떤 물건이 있어 장애를 받아 편안하지 않은 것⁵²⁾을 말하는데 이는 火氣가 上逆된 것⁵³⁾으로 肺는 燥하고 津液이 不足⁵⁴⁾하여 虛火가 肺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麥門冬으로 生津潤燥하고, 半夏로 佐藥을 삼아 結聚된 것을 풀고, 人參·甘草·粳米·大棗로 脾胃를 補하여 肺金을 資助하여 肺虛에 熱이 있고 津液이 不足한 것을 치료하였다.⁵⁵⁾ 그러므로 吳謙 등은 “大逆上氣”의 ‘大’를 ‘火’의 誤字⁵⁶⁾로 보았는데 이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11條. 葶藶大棗瀉肺湯證

【原文】

肺癰에 喘不得臥하면 葶藶大棗瀉肺湯主之라

葶藶大棗瀉肺湯方: 葶藶熱令黃色 搗(1)丸如彈丸大(2)(2) 大棗十二枚

右先 以水三升으로 煮棗하여 取二升하여 去棗하고 內葶藶하여 煮取一升하여 頓服(3)이라

【校勘】

1) 葶藶熱令黃色搗丸如彈丸大: 『醫統本』에는 “熱令黃色”이 “熬令黃色”으로, 『備急千金要方校釋·卷第十七 肺痿第六』에는 “葶藶搗丸如彈丸大”가 “葶藶 三兩爲末”로 되어 있다.

【注釋】

- (1) 搗: 搗也, 찧을 도
- (2) 彈丸大(탄환대): 彈子大와 같다. 丸劑 1알의 크기가 옛날 탄알 크기만한 것이나 달걀노른자만한 것을 말한다. 탄자대는 오동나무의 씨 10개 정도이며 보통 15~20g 정도이다.
- (3) 頓服(돈복): 많은 量의 약을 단번에 먹는 것.

【國譯】

肺癰에 숨이 차서 잠을 잘 수 없으면 葶藶大棗瀉肺湯으로 치료한다.

葶藶大棗瀉肺湯方

葶藶 누런 색이 되도록 볶아서 찧어 彈丸大로 丸을 만든다. 大棗 十二枚

以上の 藥材를 먼저 물 三升으로 大추를 삶아 二升이 되게 하여 大추를 꺼내고 葶藶子를 넣고 一升이 되도록 달여서 단번에 服用한다.

【考察】

本 條文은 앞의 1條에서 밝힌 “口中辟辟 燥欬卽胸中隱隱痛 脈反滑數”한 肺癰에 “喘不得臥”의 症狀이 더해진 것으로 邪氣가 肺를 막아서⁵⁷⁾ 肺氣를 逼迫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苦大寒한 葶藶으로 肺의 邪氣를 瀉하고, 大棗는 葶藶의 猛烈한 性質로 正氣가 損傷될 것을 防止하기 위함이다. 다만 葶藶大棗瀉肺湯은 肺癰의

52) 吳謙 等: 不利者는 謂咽喉若有物相碍하여 不爽利也라
53) 吳謙 等: 今欬而上氣咽喉無水鷄聲而不利者는 是火氣上逆也라
54) 魏荔澗: 咽喉不利는 肺燥津乾也라
55) 魏荔澗: 主之以麥冬生津潤燥하고 佐以半夏開其結聚하며 人參甘草粳米大棗로 概施補益于胃土以資肺金之助하니 是爲肺虛有熱始短者立法也라
56) 吳謙 等: 大逆上氣之大字는 當是火字라야 文義病藥始屬하니 必是傳寫之誤라
57) 吳謙 等: 是邪壅肺甚急이라

初期에 表症이 다 낫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肺癰에 膿血이 이미 이루어진 뒤 또는 正氣가 매우 虛弱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⁵⁸⁾

12條. 桔梗湯證

【原文】

欬而胸滿하고 振寒脈數1)하며 咽乾不渴하고 時出濁唾腥臭2)하고 久久吐膿如米粥者3)는 爲肺癰이니 桔梗湯主之라

桔梗湯方 亦治血痺(1) : 桔梗一兩4) 甘草二兩5)

右二味를 以水三升으로 煮取一升하야 分溫再服則吐膿血也라

【校勘】

- 1) 振寒脈數: 『尤本』에는 “脈數”으로 되어 있다.
- 2) 時出濁唾腥臭: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時時出濁唾腥臭”로 되어 있다.
- 3) 米粥者: 『脈經·卷八 平肺痿肺癰咳逆上氣痰飲脈證第十五』에는 “粳米粥者”로 되어 있다.
- 4) 桔梗一兩: 『備急千金要方校釋·卷第十七 肺痿第六』에는 “桔梗三兩”으로, 『外臺·卷十 肺癰方九首』에는 “桔梗二兩”으로 되어 있다.
- 5) 甘草二兩: 『尤本』에는 “甘草三兩”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血痺(혈비): 氣血이 허약해져서 생긴 痺證을 말한다. 온 몸의 피부 감각이 둔해지면서 뻣뻣하고 팔다리의 관절이 아프며 또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아프다.

【國譯】

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추운 감을 느끼면서 땀이 떨어지며 寸口脈이 數하고 咽喉가 乾燥하나 渴症은 없고 때로는 비린내가 나는 濁唾를 뱉으며 오래도록 米粥같은 膿을 마하면 肺癰이니 桔梗湯으로 치료한다.

桔梗湯方 血痺도 치료한다.

桔梗一兩 甘草二兩

以上の 두 가지 藥材를 물 三升으로 一升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두 번에 服用하면 膿血을 마한다.

【考察】

본 條文은 肺癰에 膿血을 마하는 경우의 치료를 설명하고 있다. 앞의 2條에서 肺癰에 膿血을 마하면 죽는다고 하였으나 비록 肺癰에 膿血이 형성되었다라도 膿血이 아주 甚하지 않아 肺葉이 完全하고 아직 腐敗가 되지 않았으면 치료할 수 있으니⁵⁹⁾ 앞의 葶蔞大棗瀉肺湯은 膿血이 형성되기 이전에 사용하고, 본 條의 桔梗湯은 膿血이 形成되었으나 아주 甚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肺癰은 風熱이 壅滯된 것이므로 桔梗의 苦味로써 宣開하고, 熱이 모이면 毒을 이루므로 甘草로써 解熱하였다. 桔梗湯은 甘味인 甘草가 苦味인 桔梗보다 많아서 藥力이 지나치게 緩慢할 것

같으나 膿血이 이미 형성되어 正氣가 損傷되고 潰瘍될 때에는 峻烈한 藥材로 排擊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⁶⁰⁾

13條. 越婢加半夏湯證

【原文】

欬而上氣하면 此爲肺脹이니 其人喘하야 目如脫狀하고 脈浮大者는 越婢加半夏湯主之라

越婢加半夏湯方 : 麻黃六兩 石膏半斤 生薑三兩 大棗十五枚 甘草二兩 半夏半升1)

右六味를 以水六升으로 先煮麻黃하야 去上沫하고 內諸藥하야 煮取三升2)하야 分溫三服이라

【校勘】

- 1) 麻黃六兩 石膏半斤 生薑三兩 大棗十五枚 甘草二兩 半夏半升: 『外臺·卷十 肺脹上氣方四首』에는 “大棗十五枚擘 半夏半升洗 生薑三兩 麻黃六兩去節 甘草二兩炙 石膏半升”으로 되어 있다.
- 2) 煮取三升: 『魏本』에는 “煮取二升”으로 되어 있다.

【國譯】

기침을 하면서 숨이 가쁘면 肺脹이니 환자가 숨이 차고 눈이 빠질 것 같으며 脈이 浮大하면 越婢加半夏湯으로 치료한다.

越婢加半夏湯方 : 麻黃 六兩, 石膏 半斤, 生薑 三兩, 大棗 十五枚, 甘草 二兩, 半夏 半升

먼저 물 六升으로 麻黃을 달여서 위에 떠있는 거품을 없애고 나머지 藥材를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考察】

咳嗽과 上氣는 肺脹의 症狀⁶¹⁾으로서 現代醫學的 病名으로 急性氣管支炎·肺炎 등에 해당⁶²⁾되며, 앞의 4條에서 風寒의 邪氣가 侵犯하여 氣가 運行하지 못하여 內部에 水氣가 쌓이고 上逆하여 咳嗽과 上氣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條文은 肺脹에 喘息·目如脫狀을 兼한 것으로서 脈이 浮大한 것은 밖으로는 風寒의 邪氣가, 안으로는 熱이 쌓인 것이니⁶³⁾ 外邪와 內飲이 肺를 막아 喘息·咳嗽·上氣의 症狀이 나타나고 目如脫狀은 氣가 막혀서 나타난 것이다.⁶⁴⁾ 越婢加半夏湯은 越婢湯에 半夏를 加味한 것으로 麻黃·生薑은 表部에 鬱結된 邪氣를 發散하고, 石膏는 熱을 내리며, 大棗·甘草는 益胃하고, 半夏는 痰飲을 없애니⁶⁵⁾ 越婢湯이 邪氣를 發散하는 힘은 많으나 水飲을 除去하는 힘이 不足하기에 半夏를 加味하였다.⁶⁶⁾

14條. 小青龍加石膏湯證

【原文】

60) 尤怡: 此病爲風熱所壅 故以苦梗開之하고 熱聚則成毒 故以甘草解之라 而甘倍于苦하야 其力似乎太緩나 意其壅膿已成하야 正傷毒潰之時엔 有非峻劑所可排擊者하니 故藥 藥不嫌輕耳라

61) 吳謙 等: 咳而上氣는 此爲肺脹也라

62) 中西病名對照表: 葉橘泉 編者, 千頃堂書局, 上海, 1955, p4.

63) 魏荔澗: 診之脈浮大는 外有風寒하야 內有蓄熱也라

64) 尤怡: 外邪內飲이 填塞肺中하야 爲脹 爲喘 爲咳而上氣라... 目如脫狀者는 目睛脹突하야 如欲脫落之狀이니 壅氣使然也라

65) 魏荔澗: 麻黃生薑은 解其鬱하고 石膏는 瀉其熱하고 半夏는 開其痰하고 大棗甘草는 益其胃라

66) 尤怡: 越婢湯은 散邪之力多而蠲飲之力少 故以半夏輔其未逮라

- 58) 金匱要略精義: 肺癰初期에 若表症未盡者는 用葶蔞大棗瀉肺湯에 宜配以宣散之藥하야 使邪氣由表裏分解이나 如果肺癰已經成膿하고 而且正氣亦虛者는 本方即當藥用이라
- 59) 魏荔澗: 或其雖雖成 而膿未大成하야 肺葉完全하고 尙未腐敗면 亦可回生也라

肺脹에 欬而上氣하고 煩燥而喘¹⁾하며 脈浮者는 心下有水니 小青龍加石膏湯主之라

小青龍加石膏湯方 千金證治同하고 外更加脇下痛引缺盆이라 麻黃二兩 芍藥二兩 桂枝二兩 細辛二兩 甘草二兩 乾薑二兩 五味子半升 半夏半升 石膏二兩

右九味를 以水一斗로 先煮麻黃하야 去沫하고 內諸藥하야 煮取三升하야 強人은 服一升하고 羸(1)者는 減之호대 日三服이오 小兒는 服四合이라

【校勘】

1) 煩燥而喘: 『魏本』·『尤本』에는 “煩躁而喘”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羸: 瘦也, 파리할 이

【國譯】

肺脹에 기침을 하면서 숨이 차고 煩燥하면서 호흡이 가쁘며 脈이 浮하면 心下에 水氣가 있는 것이니 小青龍加石膏湯으로 치료한다.

小青龍加石膏湯方 『千金方』의 證治와 같고 그 외에 脇下痛이 缺盆에 이르는 것도 치료한다.

麻黃 二兩, 芍藥 二兩, 桂枝 二兩, 細辛 二兩, 甘草 二兩, 乾薑 二兩, 五味子 半升, 半夏 半升, 石膏 二兩

물 一斗에 먼저 麻黃을 달여서 위에 있는 거품을 없애고 나머지 藥材를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體力가 강한 사람은 一升을, 體力가 弱한 사람은 이보다 적게 하루에 세 번 복용하며, 小兒는 四合씩 服用한다.

【考察】

肺脹에 煩燥하면서 喘息이 있고 浮脈이 나타나는 것은 心下에 水飲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煩燥의 症狀은 熱이 熾盛한 것이므로 淸熱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小青龍加石膏湯을 사용하였다⁶⁷⁾. 心下에 水飲이 있으니 麻黃과 桂枝로 發汗하여 水飲을 밖으로 發泄하고, 半夏·乾薑·細辛으로 溫中하여 內部の 水飲을 解散하고, 芍藥·五味子는 上逆된 氣를 收斂하여 肺를 平安하게 하고, 甘草는 益脾土하여 水氣를 統制하고, 石膏를 加味하여 煩燥를 除去하고 또한 解肌汗出하기 위함이다.⁶⁸⁾

附方

【原文】

外臺炙甘草湯¹⁾ 治肺痿涎唾多하고 心中溫溫液液(1)者라 方見虛勞라

【校勘】

1) 外臺炙甘草湯: 『虛勞門』에는 “千金翼炙甘草湯”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溫溫液液: 속이 메스메스하고 吐하고 싶은 것.

【國譯】

『外臺』 炙甘草湯은 肺痿에 涎唾가 많고 가슴이 메스메스

하고 吐하고 싶은 것을 치료한다. 處方은 虛勞門에 있다.

【考察】

『虛勞門』의 千金翼炙甘草湯은 復脈湯이라고도 하며, 虛勞不足에 汗出하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과 結脈 및 心悸를 主治한다. 處方은 甘草四兩炙 桂枝三兩 生薑三兩 麥門冬一升 麻仁半升 人參二兩 阿膠二兩 大棗三十枚 生地黃一斤으로 構成되어 있고, 服用法은 阿膠를 제외한 나머지 藥材를 술 七升과 물 八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인 뒤에 찌꺼기를 버리고 阿膠를 넣고 완전히 녹여서 一升씩 따뜻하게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⁶⁹⁾ 炙甘草湯은 虛勞氣血의 不足을 치료하는 處方이다. 虛勞不足은 陰陽氣血이 모두 부족한 것이니 汗出하는 것은 陽虛하여 外表를 防衛하지 못하는 것이고, 胸悶은 津液이 말라서 內部를 滋養하지 못하는 것이며, 陽虛하기 때문에 結脈이 나타나고 津液이 말랐기 때문에 心悸가 나타난다.⁷⁰⁾

肺痿에 炙甘草湯을 쓰는 것은 肺痿가 1條의 原文에 밝혔듯이 肺痿는 汗·吐·下를 잘못하여 津液이 줄어들어 발생하기 때문에 肺痿를 虛勞不足의 한 가지로 본 것으로 思料된다.

『外臺·卷10 肺痿方一十首』에는 桂枝가 桂心으로 되어있다.⁷¹⁾

【原文】

千金 甘草湯方

甘草

右一味를 以水三升으로 煮減半하야 分溫三服이라

【國譯】

『千金』 甘草湯

甘草 二兩을 물 三升으로 一升半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原文에는 甘草의 分量이 없으나 『千金』에는 “甘草二兩”으로⁷²⁾, 『外臺』에는 “甘草二兩炙”로 되어 있고, 主治證은 肺痿에 “肺痿涎唾多出 心中溫溫液液”⁷³⁾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의 “炙甘草湯”과 같은 것으로 思料된다.

【原文】

千金生薑甘草湯 治肺痿에 欬唾涎沫不止하고 咽燥而渴이라

生薑五兩 人參三兩 甘草四兩 大棗十五枚¹⁾

右四味를 以水七升으로 煮取三升하야 分溫三服이라

【校勘】

1) 大棗十五枚: 『備急千金要方校釋·卷第十七 肺痿第六』에는 “大棗十二枚”로 되어 있다.

67) 魏荔澗: 肺脹咳逆은 猶前證也오 加以煩躁는 內熱熾盛乎前矣라 … 此證은 較前熱甚 則肺痿更易成 故은 以淸熱爲尤急焉이라

68) 李彭: 心下有水하니 麻黃桂枝로 發汗하야 以泄水於外하고 半夏乾薑細辛은 溫中하니 以散水於內하고 芍藥五味子는 收逆氣하니 以平肺하고 甘草는 益脾土以制水하고 加石膏하야 以去煩躁하며 兼能解肌汗出也라

69) 「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 千金翼炙甘草湯 云云復脈湯이니 治虛勞不足汗出而悶이라 脈結悸行動如常不出百日危急者는 十一日死라 甘草四兩炙 桂枝三兩 生薑三兩 麥門冬一升 麻仁半升 人參二兩 阿膠二兩 大棗三十枚 生地黃一斤 右九味를 以酒七升水八升으로 先煮八味하야 取三升하고 去滓하고 內膠消盡하고 溫服一升日三服이라

70) 喜多村直寬: 此는 治虛勞氣血不足之方也라 言虛勞不足은 陰陽氣血共不足也니 汗出者는 陽虛無以衛外也오 而悶者는 津枯無以內榮也오 陽虛 故로 脈結이오 津枯 故로 心悸라

71) 外臺: 甘草四兩炙 生薑三兩去皮 人參二兩 地黃一斤 阿膠三兩炙 大棗子仁半升 大棗十四枚 麥門冬半斤去心 桂心二兩 右九味切 以美酒七升 水八升 相和先煮八味 取四升 絞去滓 內膠上微火烱銷 溫服七合 日三夜一

72) 備急千金要方校釋·卷第十七 肺痿第六: 甘草二兩

73) 外臺·卷十 肺痿方一十首: 千金療肺痿涎唾多出 心中溫溫液液 甘草湯方 甘草二兩炙 右一味 以水三升 煮取一升半 分溫三服

【國譯】

『千金』 生薑甘草湯은 肺痿에 咳唾하고 涎沫이 그치지 않으며 咽喉가 乾燥하고 口渴이 있는 것을 治療한다.

生薑 五兩, 人參 三兩, 甘草 四兩, 大棗 十五枚 위의 네 가지 약재를 물 七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肺痿에 ‘涎沫不止’하는 것은 앞의 5條에서 밝혔듯이 ‘肺中冷’하기 때문인 것으로 肺氣가 虛寒하여 津液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甘草乾薑湯의 變方인 生薑甘草湯을 사용하였다. 處方의 甘草·人參·大棗는 脾胃를 溫돋아 津液을 생성하고, 生薑의 辛溫한 것으로 鬱滯된 것을 宣行하여 脾胃의 津液을 肺로 흘러보내면 말랐던 것이 潤澤하게 된다.⁷⁴⁾

【原文】

千金桂枝去芍藥加皂莢湯 治肺痿吐涎沫¹⁾이라
桂枝三兩 生薑三兩²⁾ 甘草二兩 大棗十枚³⁾ 皂莢二枚⁴⁾ 去皮子炙焦

右五味를 以水七升으로 微微火煮取三升하야 分溫三服이라

【校勘】

- 1) 治肺痿吐涎沫: 『備急千金要方校釋·卷第十七 肺痿第六』에는 “治肺痿吐涎沫不止”로 되어 있다.
- 2) 桂枝三兩: 『外臺·卷十 肺痿方十一首』에는 “桂心三兩”으로 되어 있다.
- 3) 大棗十枚: 『備急千金要方校釋·卷第十七 肺痿第六』·『魏本』에는 “大棗十二枚”로, 『外臺·卷十 肺痿方十一首』에는 “大棗十二枚擘”으로 되어 있다.
- 4) 皂莢二枚: 『醫統本』에는 “皂莢乙枚”로, 『備急千金要方校釋·卷第十七 肺痿第六』에는 “皂莢一挺”으로 되어 있다.

【國譯】

『千金』 桂枝去芍藥加皂莢湯은 肺痿에 吐涎沫하는 것을 治療한다.

桂枝 三兩, 生薑 三兩, 甘草 二兩, 大棗 十枚, 皂莢 二枚(껍질과 씨앗을 없애고 누렇게 굽는다.)

이상의 다섯 가지 藥材를 물 七升을 넣고 약한 불에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本方の 適應症은 肺痿에 濁痰이 胸中을 막은 것을 주된 目標로 삼으니 桂枝湯으로 胸中의 陽氣를 잘 통하게 하고, 皂莢으로 濁痰을 씻어내며, 芍藥은 胸中이 막힌 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芍藥을 뺐다.⁷⁵⁾ 앞의 7條에 있는 皂莢丸이 “咳逆上氣 時時吐濁 但坐不得眠”의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本方은 “上氣不得眠”의 증상이 있어야 쓸 수 있다.⁷⁶⁾ 또한 皂莢이 滌痰하는 힘이 매우 強烈하기 때문에 實證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

74) 沈明宗: 卽炙甘草湯之變方也라 甘草人參大棗은 扶脾胃而生津液하고 以生薑辛潤宣行帶氣하야 脾胃中津液으로 澀滯于肺 則澤穉回枯하야 不致肺熱葉焦하야 爲治肺痿之良法也라

75) 喜多村直寬: 此肺痿는 其人必胸中有濁痰而爲壅閉者라 故로 用桂枝湯하야 以通暢胸中陽氣하고 更加皂莢하야 以滌其痰濁也 芍藥은 非胸壅之所宜 故로 去之라

76) 徐彬: 此方은 必略兼上氣不得眠者 宜之라

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虛證에 속하는 肺痿보다는 오히려 肺癰에 적합한 處方으로 思料된다.

【原文】

外臺桔梗白散湯 治欬而胸滿振寒¹⁾하며 脈數하며 咽喉不渴하며 時出濁唾腥臭하고 久久吐膿如米粥者²⁾爲肺癰이라

桔梗三分 貝母三分³⁾ 巴豆一分 去皮 熬¹⁾ 研去脂⁴⁾

右三味爲散하야 強人은 飲服半錢匕하고 羸者는 減之라 病在膈上者는 吐膿血하고 膈下者는 瀉出이라 若下多不止하면 飲冷水一杯則定이라

【校勘】

- 1) 欬而胸滿振寒: 『外臺·卷十 肺癰方九首』에는 “欬胸中滿而振寒”으로 되어 있다.
- 2) 如米粥者: 『外臺·卷十 肺癰方九首』에는 “如糲米粥者”로 되어 있다.
- 3) 桔梗三分 貝母三分: 『尤本』에는 “桔梗 貝母各三兩”으로 되어 있다.
- 4) 去皮熬研去脂: 『外臺·卷十 肺癰方九首』에는 “去皮心 熬研作脂”로, 『魏本』에는 “去皮 熬 研如脂”로 되어 있다.

【注釋】

(1) 熬: 熬: 乾煎, 볶을 오

【國譯】

『外臺』 桔梗白散湯은 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추운 감을 느끼면서 몸이 떨리며 寸口脈이 數하며 咽喉는 乾燥하나 渴症은 없고 때로는 비린내가 나는 濁唾를 뱉으며 오래도록 살죽과 같은 膿을 吐하는 肺癰을 치료한다.

桔梗 三分, 貝母 三分, 巴豆 一分(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갈아서 기름을 뺐다.)

위의 세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體力이 강한 사람은 半錢 匕만큼, 體力이 弱한 사람은 減量하여 服用한다. 病이 膈上에 있으면 膿血을 吐하고, 膈下에 있으면 泄瀉를 한다. 만약 泄瀉가 그치지 않으면 冷水 한 그릇을 마시면 泄瀉가 그친다.

【考察】

本方은 앞의 12條에 있는 桔梗湯과 適應症이 같은데 다만 桔梗湯이 甘草가 많아서 藥力이 완만한데 비하여 甘草가 없고 貝母와 巴豆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實證의 肺癰에 잠시 써서 胸中의 壅膿을 疏通시키는데 쓰일 것으로 思料된다.

【原文】

千金葶藶湯 治欬有微熱하고 煩滿胸中甲錯¹⁾是爲肺癰이라
葶藶二升¹⁾ 薏苡仁半升 桃仁五十枚²⁾ 瓜瓣半升

右四味를 以水一斗로 先煮葶藶하야 得五升하고 去滓하야 內諸藥하야 煮取二升하야 服一升호대 再服하면 當吐如膿이라

【校勘】

- 1) 葶藶二升: 『外臺·卷十 肺癰方九首』에는 “剉葶一升”으로 되어 있다.
- 2) 桃仁五十枚: 『外臺·卷十 肺癰方九首』에는 “桃仁五十枚去皮尖皮兩人者”로, 『尤本』에는 “桃仁五十粒”으로 되어 있다.

【注釋】

(1) 甲錯: 피부가 말라서 거칠어진 것. 주로 營血이 모자라 생기는데 심하면 고기 비늘처럼 角質化된다.

【國譯】

『千金』葦莖湯은 咳嗽에 微熱이 있고 煩滿하며 胸中の 皮膚가 甲錯되는 肺癰을 치료한다.

葦莖 二升, 薏苡仁 半升, 桃仁 五十枚, 瓜瓣 半升

먼저 물 一斗로 먼저 葦莖을 달여서 五升이 되게 하고 찌꺼기를 버리고 나머지 藥材를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서 一升씩 服用하는데 두 번 服用하면 膿을 吐한다.

【考察】

本方이 附方으로 되어 있으나, 『外臺·卷十 肺癰方九首』의 注釋에 “仲景傷寒論云葦葉切二升”의 記載를 보면 仲景의 原方인 것으로 思料된다.

葦莖湯은 肺癰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痲痺로 발생하려는 때에 早期에 치료하려는 것으로, 胸部의 ‘皮膚甲錯’이 本方을 쓰기 위한 最適症이다.⁷⁷⁾ ‘皮膚甲錯’의 症狀은 營血不足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肺癰이 外感이 아닌 內熱의 熏灼으로 인한 것에 이 처방을 쓰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⁷⁹⁾

15條. 葶藶大棗瀉肺湯證

【原文】

肺癰에 胸滿脹하고 一身面目浮腫하며 鼻塞涕出하고 不聞香臭酸辛하며 欬逆上氣하고 喘鳴迫塞하면 葶藶大棗瀉肺湯主之라 方見上이라 三日一劑可至三四劑라 此先服小青龍湯一劑乃進이라 小青龍湯은 方見咳嗽門中이라

【國譯】

肺癰에 胸部가 脹滿하고 얼굴과 눈썹만이 아니라 온몸이 붓고,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을 흘리며, 냄새를 맡지 못하고, 기침을 하고, 숨이 가쁘면서 痰이 끊어 답답하면 葶藶大棗瀉肺湯으로 치료한다. 處方은 위에 있다. 三日에 한 첩을 쓰는데 서너 첩까지 쓸 수 있다. 葶藶大棗瀉肺湯을 쓰기에 앞서 小青龍湯을 한 첩을 服用한 뒤에 쓴다. 小青龍湯은 咳嗽門에 있다.

【考察】

本條文은 앞의 11條에서 나와 있는 葶藶大棗瀉肺湯을 應用하는 다른 例를 설명하였다. 肺가 胸中에 位置하고 있으므로 肺癰이 발생되면 胸部가 脹滿하고, 一身의 面目에 浮腫이 발생하는 것은 肺가 氣를 主宰하고 皮毛와 습하니 火가 上升하고 氣가 上逆된 것이다. 鼻塞涕出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은 肺가 竅에 開竅하니 肺氣가 막힌 것이며, 咳逆上氣하고 喘鳴迫塞하는 것은 모두 肺氣가 不利하기 때문이다.⁸⁰⁾

總括 및 結語

肺痿는 肺臟이 말라 시들고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慢性衰弱性 疾患의 하나이다. 肺痿는 현대 의학적으로 肺痿는 肺結核의

종류에 해당되며, 口中에 稠痰 또는 稀涎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서 虛熱肺痿과 虛寒肺痿로 구분된다. 虛熱肺痿는 津液이 말라서 虛熱이 肺를 熏灼하므로써 咳嗽을 하고 濁唾涎沫이 많고 脈虛數한 것이 특징이다. 虛寒肺痿의 成因에 대하여 原文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5條에 의하면 ‘肺中冷’으로 인하여 涎沫이 나오나 咳嗽과 口渴은 없고 遺尿小便數하며 頭眩한 증상이 특징이며, 甘草乾薑湯으로 치료한다. 本편에 제시된 肺痿의 治方이 비교적 미흡한데 附方에 있는 外臺炙甘草湯·千金甘草湯·千金生薑甘草湯·千金桂枝去芍藥加皂莢湯을 應用할 수 있으나 外臺炙甘草湯과 千金甘草湯은 涎唾多·心中溫溫液液한 경우에, 千金生薑甘草湯은 咳唾涎沫不止 咽燥而渴한 경우에, 千金桂枝去芍藥加皂莢湯은 吐涎沫한 경우에 사용한다. 『東醫寶鑑』⁸¹⁾에는 肺痿를 「咳嗽門」에 포함시키고 本편에 제시된 甘草乾薑湯·生薑甘草湯 외에 知母茯苓湯⁸²⁾·人參平肺散⁸³⁾·紫菀散⁸⁴⁾·門冬清肺飲⁸⁵⁾·人參養肺湯⁸⁶⁾·劫勞散⁸⁷⁾·嚙化仙方⁸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肺痿의 豫後는 煩滿하고 咳嗽을 하며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는 쉽게 치료되나, 입을 벌리고 숨결이 빠르면서 이어지지 못하고 숨이 찬 短氣한 사람은 위태하며 폐가 쪼그라들고 목소리가 쉬고 咳血을 하며 六脈이 沈澹하면서 急하거나 細數하면서 神氣가 없고 脈口部位의 皮膚가 거칠고 숨이 거친 사람은 모두 치료할 수 없다.⁸⁹⁾

肺癰은 外感의 風熱邪가 營衛에 침범하여 咳嗽·胸痛·發熱·咳嗽할 때 비린내의 膿痰을 吐하고 심할 경우 膿血을 吐하는 病證으로, 현대 의학적으로는 肺膿瘍·氣管支擴張症·肺壞疽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肺癰을 表證期·化膿期·潰膿期로 구분한다. 表證期에는 惡寒發熱과 咳嗽 및 浮脈이 나타나기 때문에 風熱로

81) 東醫寶鑑: 許俊, 南山堂, 서울, 1983.
 82) 知母茯苓湯: 肺痿에 喘嗽·寒熱往來·自汗한 것을 치료한다. 知母 赤茯苓 黃芩各一錢 人參 半夏製 各七分 五味子 款冬花 桔梗 麥門冬 柴胡 各五分 白朮 甘草 各六分 川芎 阿膠珠 各四分 薄荷 三分 以上을 한 貼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服用한다. 上揭書 p. 481
 83) 人參平肺散: 心火가 肺를 刑克하여 肺痿가 되어 咳嗽 喘喘 痰涎壅盛 寒熱 盜汗하는 것을 치료한다. 桑白皮二錢 知母 人參 地骨皮 甘草炙 各一錢 天門冬 赤茯苓 各八分 陳皮 青皮 各五分 五味子二十粒 以上을 한 貼으로 해서 生薑 3片을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481
 84) 紫菀散: 肺痿에 咳唾膿血하고 肺癰이 되려고 하는 것을 치료한다. 紫菀 知母 貝母 各一錢半 人參 桔梗 赤茯苓 各一錢 阿膠珠 甘草 各五分 五味子 三十粒 以上을 한 貼으로 해서 生薑 3片을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482
 85) 門冬清肺飲: 肺와 胃가 虛弱하여 呼吸이 빠르거나 혹은 膿血을 吐하여 肺痿가 되려고 하는 것을 치료한다. 紫菀茸 二錢 黃芪 白芍藥 甘草 各一錢半 人參 麥門冬 各一錢 當歸身 六分 五味子 十五粒 以上을 한 貼으로 해서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482
 86) 人參養肺湯: 肺痿證에 咳嗽을 하고 咯痰이 있고 午後에 熱이 나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치료한다. 柴胡 二錢 桑白皮 一錢 赤茯苓 五味子 貝母 杏仁 枳實 桔梗 各七分 人參 阿膠珠 甘草 各五分 以上을 한 貼으로 해서 生薑 3片 대주 2枚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482
 87) 劫勞散: 心과 腎이 모두 虛한 勞嗽에 기침을 두 세 번 하나 咯痰은 없고, 밤이 되면 發熱이 있다가 熱이 내리면 몸이 차가워지고, 때로 盜汗이 나며 四肢倦怠하고 食사량이 줄고 몸이 약해지면서 누렇게 여위하는 것을 치료한다. 白芍藥 一錢 黃芪 甘草 人參 茯苓 熟地黃 當歸 五味子 半夏製 阿膠 各四分 以上을 生薑과 대주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482
 88) 嚙化仙方: 咯痰이 많고 기침이 나고 숨이 차며 膿血을 吐하는 肺痿를 치료한다. 嚙梨汁 生蘿蔔汁 生薑汁 白砂糖 款冬花 桔梗 紫菀 各二兩 五味子 一兩 위의 藥材를 함께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고약을 만든 다음 人參가루 一兩을 넣고 반죽하여 彈子大로 만들어 잠들기 전에 1丸씩 입에 머금고 녹여 먹는다. 上揭書 p. 482
 89) 謝觀: 新編中國醫學大辭典, 여강출판사, 서울, 2001, p. 2059

77) 魏荔洞: 肺癰欲成未成之際에 圖治當早者也라
 78) 魏荔洞: 此于胸中甲錯一證辨之最的當이라
 79) 魏荔洞: 凡治肺癰無外感 而因內熱熏灼者가 以此方爲第一義也라
 80) 李彥: 肺在胸中하니 癰則胸爲脹滿이오 一身面目浮腫者는 肺主氣하고 合皮毛하니 火升氣逆也오 鼻塞涕出하고 不聞香臭酸辛者는 肺開竅於鼻 하니 肺氣壅塞也오 咳逆上氣하고 喘鳴迫塞은 總屬肺氣不利所致라

인한 外感과 症狀이 類似하며 銀翹散⁹⁰類를 主治方으로 한다. 化膿期에는 振寒脈數과 胸部의 은은한 痛症, 咳唾濁沫이 주된 症狀으로 千金葦莖湯을 主治方으로 삼고, 만약 喘不得臥의 증상이 있으면 葶藶大棗瀉肺湯을 사용한다. 潰膿期에는 비린내가 나고 米粥과 같은 喀痰이 나오고 기침할 때 膿血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桔梗湯을 主治方으로 삼고, 外臺桔梗白散은 患者의 體力이 强하고 正氣가 虛弱하지 않을 때 사용하며, 千金葦莖湯은 清肺化痰과 活血排膿의 主治方으로 膿血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진 후에도 사용할 수 있고, 桔梗湯은 膿血을 마한 뒤에 虛症으로 되었을 때 補益하는 藥材를 加味하여 사용한다.⁹¹ 『東醫寶鑑』⁹²에서는 肺癰을 「癰疽門」에 編述하여 消膿飲⁹³·牡丹皮湯⁹⁴·黃昏湯⁹⁵ 등의 治方을 제시하였다. 또한 豫後에 있어서 肺癰에 膿을 마한 뒤에 脈이 短하면서 澁한 사람은 저절로 치유되나, 浮大하면 낫기 어려우며 顏色이 白色이어야 하나 도리어 赤色이 되면 火가 金을 克한 것이어서 치료할 수 없다.⁹⁶

咳嗽上氣는 기침을 하면서 내쉬는 숨은 많고 들이쉬는 숨은 적어서 호흡이 促急한 것이다. 題目에 咳嗽上氣라고 한 것은 증상으로써 삼은 것이나 13條에 “欬而上氣 此爲肺脹”이라 하여 咳嗽上氣가 肺脹이라고 定意하였고, 『東醫寶鑑』에서도 「咳嗽門」에 肺脹條를 두어 本편의 내용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引用하였으며, 喜多村直寬이 “이 篇은 肺痿·肺癰·肺脹을 論述하였다. 本 篇의 題目에 咳嗽上氣라 하고 肺脹을 擧名하지 않은 것은 金匱要略이 舊刊本을 모아서 만든 것이므로 앞뒤가 뒤섞이고 순서가 紊亂하다. 그러므로 肺痿를 논하다가도 肺癰을 논하고, 肺癰을 논하다가도 肺脹을 논하고, 肺脹을 논하다가도 肺痿를 논하여 後人들이 咳嗽上氣를 病名으로 誤認하였으나 肺脹의 이름만은 남겨두었다.”⁹⁷고 한 점을 미루어 보면 咳嗽上氣는 肺脹의 症狀이기 때문에 題目을 “肺痿肺癰肺脹”으로 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咳嗽上氣와 관련되어 本 篇에 제시되어 있는 처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大략 虛證과 實證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寒飲으로 ‘喉中水鷄聲’이 있을 때의 射干麻黃湯, 胸中の 痰結로 인하여 濁沫을 마하고 但坐不得眠할 때의 皂莢丸, 外感表證에 水飲이

停滯되어 浮脈이 나타날 때의 厚朴麻黃湯, 風寒邪로 인하여 目如脫狀과 浮脈이 나타날 때의 越婢加半夏湯, 心下에 水飲이 있어서 煩燥而喘하며 浮脈이 나타날 때의 小青龍加石膏湯은 實證에 사용할 수 있으며, 外感表證에서 裏部로 들어가 沈脈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澤漆湯과 津液이 不足하여 虛火가 肺를 熏灼할 때 사용하는 麥門冬湯은 虛證에 사용할 것으로 思料된다.

參考文獻

1.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臺北, 1960.
2. 魏荔澗.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3. 尤怡.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5.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綜合出版社, 台南, 1990.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4.
7.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志遠書局, 臺北, 2003.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10.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11. 王叔和. 影宋版 『脈經』. 東洋醫學研究院, 大坂, 1981.
12. 巢元方 著, 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13.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15.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6.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7.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8.
18. 朱橚 撰. 普濟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19. 趙估.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0. 李紘.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21.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22. 楊思澍, 張樹生, 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23. 趙以德, 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24.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25.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26.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27.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 校 大學院, 益山, 2000.
28. 張介賓. 類經. 대성출판사, 서울, 1982.
29. 喜多村直寬 編著 麟譚瑛 校注. 金匱玉函要略疏義.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3.
30. 김형섭. 내과학 호흡기 II. 고려의학, 서울, 2003.
31. 대한내과학회 편.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90) 銀翹散: 連翹 一兩, 金銀花 一兩, 苦桔梗 六錢, 薄荷 六錢, 竹葉 四錢, 生甘草 五錢, 荊芥穗 四錢, 淡豆豉 五錢, 牛蒡子 六錢 위의 약재들을 짓찧어서 가루 내어 매 회 여섯 돈씩 신선한 薑根 湯액으로 달이는데, 약이 끓어오르면서 향기가 크게 일어나면 곧바로 취해서 복용하고 오래 달이면 안 된다.
吳鞠通 著, 丁影炫 譯: 國譯 溫病條辨, 集文堂, 서울, 2004, p. 94

9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p. 198

92)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93) 消膿飲: 肺癰으로 고름을 마하는 것을 치료한다. 南星炮 一錢, 射干 桔梗 天門冬 薄荷 紫蘇葉 杏仁 半夏 防風 各七分半, 知母 貝母 阿膠 川芎 生乾地黃 桑白皮 白朮 白芷 甘草 各五分 위의 약재들을 한 貼으로 해서 生薑 七片, 烏梅 一箇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44

94) 牡丹皮湯: 肺癰에 젖가슴 사이가 아프고 입으로 膿血을 마하면서 입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牡丹皮 升麻 桔梗 薏苡仁 地榆 黃芩 赤芍藥 甘草生 各一錢三分 위의 약재를 한 貼으로 해서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44

95) 黃昏湯: 肺癰에 胸部의 피부가 甲錯하고 기침을 하면서 숨이 차고, 煩熱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손바닥 크기만한 夜合樹皮 즉 合歡皮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上揭書 p. 544

96) 上揭書 p. 544

97) 喜多村直寬 編著 麟譚瑛 校注: 金匱玉函要略疏義,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3, p. 103, 104

도서출판 MIP, 서울, 2003.

32.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溫病條辨. 集文堂, 서울, 2004.

參考辭典

1. 中醫研究院, 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知識出版社, 香港, 年度未詳.
2.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2001.
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5.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7. 金赫濟, 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9.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10.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 韓醫學大辭典. 정담, 서울, 2001.
11. 蔡仁植, 權賢德, 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울, 1983.
12.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3.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